

한국화재보험협회, 1973년 설립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방재기관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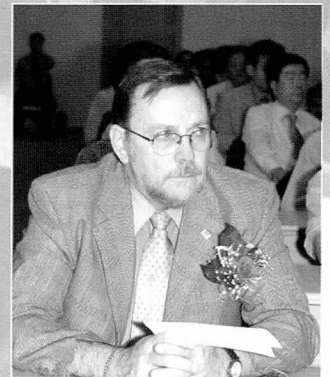
- 창립 30주년 기념 위험관리세미나 및 전직원 체육대회 열어 -

● 『창립 30주년 기념 위험관리 세미나』



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손해보험업계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위험관리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양화재를 비롯한 10개 손해보험회사 및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보험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의 후원을 받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위험관리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대형 리스크의 대응방안과 처리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섹션1과 2로 나누어 섹션1에는 김동훈(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국민대학교 교



삼성화재 자문역 James M. Dewey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수)의 사회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James M. Dewey 자문 역의 '해외 선진 보험사의 대형 리스크언더라이팅 서베이'와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의 '한국의 대재해·피난피해 보험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2섹션은 이희춘(보험개발원 손해보험본부장)의 사회로 서울 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가 '선

진국의 대재해·재난위기관리시스템', 한국화재보험협회 김인태 박사가 '국내 대형물건의 화재위험 관리 발전방향'에 관해 발표를 하였다. 한편 한석만 인토스 상무, 문상규 동양화재 팀장, 구자철 TRC Korea 상무, 김창훈 동부화재 과장이 섹션별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전직원 체육대회』

협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실내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지고 그 동안 방재업무 발전에 공로가 큰 대내·외 유공자 38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세계적인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하였다.

특히 대외 유공부문에서, 소화기 제조



업체인 삼우산기(주)의 정형로 사장에게는 FILK(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인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받들어 감사패를 전달하고, 특수건물의 보험 및 방화 관리 담당자 가운데 기업의 위험관리와 화재안전에 크게 기여한 삼성에버랜드(주) 및 금호개발(주), 육군본부, 삼성 지구환경연구소, CJ 등 20개 업체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한편, 협회는 30주년 기념식을 마친 후, 열린마당, 한걸음마당, 어울마당, 한마음마당 등 4부로 진행되는 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 청백팀으로 나누어 피구, 족구 등 운동 경기와 팀별 게임과 개인별 장기자랑 등을 펼쳤다.

